인문논총 제74권 제3호 (2017.8.31), pp. 49~80
[DOI] http://10.17326/jhsnu.74.3.201708.49

만주어 복합문의 대격 주어 현상 연구

도 정 업*

[초 록]

본 연구는 만주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격 주어 현상은 만주어 복합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특히 인용문에서는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대격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의미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문의 주어에서 나타나며,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과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한정되거나 문장에서 유표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대격 주어, 대격 표지, 복합문, 하위문, 상위문
Accusative Subject, Accusative Case, Complex Sentence, Lower Sentence, Higher Sentence

1. 머리말

본 연구는 만주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만주어의 단문에서 주어의 기능은 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논항이 담당한다. 그러나 복합문에서는 내포문이나 접속문의 주어가 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논항뿐만 아니라 속격 표지(i)나 대격 표지(be)가 연결된 논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중 내포문이나 접속문의 주어가 대격 표지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이른바 대격 주어 현상은 인용문에 한하여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주어 문헌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대격 주어 현상의 용례가 인용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용문 외의 내포문이나 접속문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본 연구는 대격 주어 현상을 인용문에 한하여 살펴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복합문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만주어의 복합문 유형을 정의하고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의 형태들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는 만주어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시하여 볼 것이다. 5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

1) 일반적으로 대격 표지를 취한 논항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대격 주어' 또는 '주어적 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두 용어 중 '대격 주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어적 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논항의 대격성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대격 주어'의 용례들에서 주어인 논항은 대격 표지와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위문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2. 대상 문헌 및 선행 연구

2.1. 대상 문헌

문법 현상의 특성은 그것이 쓰인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그런데 만주어 문법에 대한 연구는 문헌 자료에 기대는 바가 크므로 연구에 이용할 대상문헌은 최대한 모국어 화자의 문법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문헌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문헌

분류	서명 (약칭)	간행시기	소장처	卷/冊	비고
당안류	滿文老檔 (老)	177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80책	滿文
문학류	三國志 (三)	雍正 연간 (1723~1735)	프랑스 국립도서관	24/8	滿漢合璧
	金甁梅 (金)	1708	中國國家圖書館	40책	滿漢文
	滿漢西廂記 (西)	1710	서울대 도서관	4/4	滿漢合璧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들의 간행 시기는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이다. 대상 문헌 중에 만문노당(滿文老檔)과 삼국지(三國志)는 다른 두 문헌에 비해서 간행 시기가 늦지만 편찬 과정을 살펴보면 간행연도보다 이른 시기의 만주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滿文老檔』은 1607년부터 1636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만주문으로 된 당안 37책을 중초하여 만든 것으로서, 큰 틀에 있어서 원래의 당안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17세기 초반의 문법 현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三國志』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옹정(雍正)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岸田文隆(1990)에 따르면 옹정 연간의 『三國志』는 순치(順治) 7년(1650) 각본(刻本) Ilan gurun i bithe의 만주문을 베끼면서, 비규범적인 표기를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2] 따라서 이 문헌도 17세기 중반의 만주어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헌들은 18세기 초반까지에 해당하는 만주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선행 연구

인용문에 나타난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上原 久(1960)와 津曲敏郎(2002), 최동권(2002), 최동권(2006)이 있고, 인용문이 아닌 구문에서 일어나는 대격 주어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早田輝洋(2011)이 있다. 上原 久(1960)에서는 종속절 중 직접 인용된 서술문이 ala-(보고하다), donji- (듣다), gūni- (생각하다), hendu- (말하다), se- (말하다) 등의 동사에 연결되어 있을 때 be가 주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3] 津曲敏郎(2002)에서는 대격 표지가 주어의 자리에 쓰이는 것은 se- (말하다), hendu- (말하다), ala- (보고하다), donji- (듣다), gūni- (생각하다) 등에 선행하는 간접인용절에 관한 경우가 많고, 특히 술어 동사가 희구법(-∅, -ki, -kini, -rahū 등)인 경우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 목적격 주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4]

두 연구는 be가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인용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두 연구에서 모두 대격 주어의 유일한 예외로서 manggi (후에)와 결합한 동일한 문장을 제시한다.

---

2) 岸田文隆(1990), 「三譯總解 底本考」, 『알타이학보』 2, 한국알타이학회, p. 92.

3) 上原 久(1960), 『滿文 滿洲實錄の研究』, 東京: 不昧堂, pp. 430-431.

4)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pp. 87-88.

(1) tere elcin be isinaha manggi,[5)]
그 사신이 도착한 후,

早田輝洋(2011)에서는 이러한 manggi와 결합한 대격 주어에 주목하여, manggi와 결합한 대격 주어의 예를 더 찾아내었는데, 각각『滿文老檔』에서 8개, 순치기의『滿文三國志』에서 3개, 총 11개의 예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는 manggi와 결합한 문장에서 대격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

최동권(2002)에서는 인용문의 대격 주어 현상이 상위문에 제한이 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고, 최동권(2006)은 주격 표지가 없는 만주어에서 주어가 화제의 초점이 되거나 강조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대격형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3. 만주어의 복합문 유형

3.1. 만주어의 복합문 구성

만주어의 복합문 구성은 한국어의 복합문 구성과 유사하다. 만주어의 복합문 구성은 기본적으로 상위문이 하위문을 직접 관할하는 접속문 구성과 상위문이 하위문을 간접 관할하는 내포문 구성으로 나뉠 수 있다. 권재일(1985)에는 이러한 복합문 구성을 도식화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도식에서 S0가 상위문이고, 관할되는 S1이 하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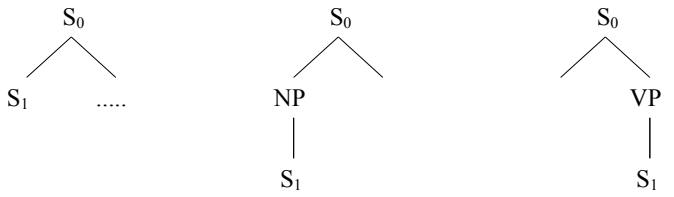
---

5) 今西春秋(1938),『滿和對譯滿洲實録』, 日滿文化協會, p. 240.

6) 早田輝洋(2011),「満洲語における対格主語」,『九州大学言語学論集』32, p. 211.

(2) 복합문 구성의 유형[7)]

가. 나.



위의 도식을 권재일(1985)의 내용에 따라 정리해보면, (2가)는 접속문 구성을 나타내고, (2나)는 내포문 구성을 나타낸다. 내포문 구성 중 명사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명사구 내포문이고, 동사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동사구 내포문이다. 명사구 내포문은 다시 S1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화 내포문과 S1 (관형절)과 내포문 명사가 함께 명사구를 구성하는 관형화 내포문으로 나뉜다.[8)]

만주어의 복합문 체계는 한국어의 복합문 체계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관형절인 S1이 내포문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와도 결합한다.[9)] 따라서 본고의 복합문 유형 분류는 기본적으로 권재일(1985)을 따르지만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을 명사구 내포문으로 묶지 않고 개별 항목으로 본다.[10)]

7)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 파주: 집문당, p. 19.

8)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 파주: 집문당, pp. 19-28.

9) 관형절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만주어에서는 관형절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요소들이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형화 내포문에 '관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관형절과 동일한 문법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 편의상 관형화 내포문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10) 내포문의 분류에서 동사구 내포문과 명사구 내포문이 아닌 동사구 내포문과 명사화 내포문, 관형화 내포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도, 용어상으로도 불완전한 면이 있다. 그러나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이 보이는 문법 현상이 동일

3.2. 복합문 유형에 따른 대격 주어 현상

이번 장에서는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인용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주어의 모든 복합문의 유형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도록 한다.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만주어의 복합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은 상위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하위문에서만 나타난다.

3.2.1. 내포문에서의 대격 주어 현상

3.2.1.1. 동사구 내포문의 대격 주어

동사구 내포문은 동사 어간이 분사 어미 -ra/-re/-ro (이하 -ra)나 -ha/-he/-ho (이하 -ha)와 결합하여 술어로 쓰인 문장이나 동사 어간과 종결 어미 -mbi, -habi, -ki, -kini, -cina, -rahū 등과 결합한 형태나 명령형인 동사 어간 형태가 술어로 쓰인 문장,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 등이 동사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만주어에서 동사 어간이 -ra나 -ha와 결합한 형태(이하 ra형과 ha형)를 분사(participle)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분사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ra형과 ha형은 동명사로서 쓰이기도 하고, 문장의 술어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문장의 술어로 쓰일 때에는 ra형은 1인칭의 의지를 나타낼 때나, 금지를 나타내는 'ume 동사 어간+ra'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이처럼 ra형과 ha형은 세 가지의 쓰임을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서 편의상 -ra와 -ha를 분사 어미라고 칭한다.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은 동사구 내포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다. 동사구 내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어에서 발생하는 분포는 만주어에서 발생

하지 않고, 권재일(1985)에서 제시한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이라는 용어가 만주어의 내포문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용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사화 내포문과 관형화 내포문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

하는 분포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영희는 철수를 좋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지각동사의 인용문에서만 주어가 대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단어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는 경우, 술어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3a) seme가 보문소인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가. (NP1) ... [NP2-∅ VP] seme VP

karun I niyalma, dergi hoton de dobon
border_guard GEN person east castle DAT night
dulin de [dain ji-mbi] seme alana-fi, (老 12:1)
middle DAT enemy come-NPST COMP go_to_report-ANT.CVB
초병이 동성(東城)으로 한밤중에 [적이 온다]고 알리러 가고

나. (NP1) ... [NP2-∅ VP] seme VP

[su ši deng baica-hakū, be gi jai I niyalma
su ši deng inspect-PST.PTCP.NEG be gi jai GEN person
gene-he] seme, su ši deng ni ahūn deo
go-PST.PTCP COMP su ši deng GEN elder_brother younger_brother
be wa-ha, (老48:4)
ACC kill-PST.PTCP
[Su Ši Deng이 조사하지 않고 Be Gi Jai의 사람이 갔다]고 Su Ši Deng의 형제를 죽였다.

다. (NP1) ... [NP2-ACC VP] seme VP

erdeni ini beye-be tondoi buce-mbi
erdeni 3.SG.GEN body-ACC loyal-GEN die-NPST
seme hendu-he se-re, (老 51:1)
COMP speak-PST.PTCP say-NPST.PTCP
Erdeni는 [스스로가 바르게 죽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라. (NP1) ... [NP2-ACC VP] seme VP
[amba beile i cooha, duici beile i cooha be ili]
amba beile GEN troop duici beile GEN troop ACC stand-IMP
seme erdeni baksi be takūra-ha manggi, (老 6:39)
COMP erdeni baksi ACC send-PST.PTCP after
(Han이) [Amba Beile의 군대, Duici Beile의 군대가 멈추라]고 Erdeni Baksi를 보내자,

(3b) se-가 본동사인 만주어의 동사구 내포문
가. (NP1) ... [NP2-∅ VP] se-
si aikabade daila-ha de, [bi
2.SG.NOM if attack-PST.PTCP DAT 1.SG.NOM
simbe tooka-bu-mbi] se-hebi, (老 14:15)
2.SG.ACC delay-CAUS-NPST say-PST
네가 만약에 공격하면, [내가 너를 저지한다] 했었다.

나. (NP1) ... [NP2-ACC VP] se-
boo su [mimbe ehe] se-hekū-ngge, (三 6:18b)
boo su 1.SG.ACC bad say-PST.PTCP.NEG-NMLZ
포숙(鮑叔)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만주어에서 동사구 내포문은 보문소인 seme와 함께 나타난다. 위의 예문에서는 (3a가)에서부터 (3a라)까지의 예문이 그러한 예이다. 그중 (3a가)와 (3a다)는 상위문의 서술어가 발화/인지/지각 동사류를 취하는 예문으로서 일반적으로 대격 주어가 나타나는 환경으로 지적되어온 인용문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3a나)와 (3a라)처럼 인용문이 아닌 부사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용문의 경우, (3a가)와 (3a다)처럼 seme VP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se-(말하다) 동사가 본동사로 쓰여서 내포문 구성을 하기도 한다. 위의 예문에서는 (3b가)와 (3b나)가 그러한 예이다. 내포문의 서술어는 모든 종류가 올 수 있는데,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쓰일 수 있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쓰일 수

있으며, 시제도 모든 시제가 쓰일 수 있다. 내포문의 주어는 격 표지를 취하지 않은 형태와 대격 표지를 취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 (3a가), (3a다), (3b가)가 내포문의 주어가 격 표지를 취하지 않은 형태이고, (3a나), (3a라), (3b나)가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 표지를 취한 형태이다.[11)]

3.2.1.2. 명사화 내포문의 대격 주어

명사화 내포문은 동사 어간이 -ra나 -ha와 결합한 분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이나 분사에 명사화소 -ngge가 결합한 형태가 술어로 쓰인 문장,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 등이 단독으로 명사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사화 내포문에서 주어는 격 표지와 결합하지 않거나 속격 표지 i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문헌에서는 대격 표지 be와 결합한 예문이 나타난다.

(4a) 내포문의 서술어가 ra형나 ha형인 명사화 내포문

가. tsootsoo juwe jugūn i [cooha isinji-ha] be
tsootsoo two road GEN soldier reach-PST.PTCP ACC
sa-fi, (三 3:21a)
know-ANT.CVB
조조가 두 길로 [군사가 온 것]을 보고

나. [mini gūni-ha] be ahūn de
1.SG.GEN think-PST.PTCP ACC elder_brother DAT
ala-mbi, (老 123:43)
report-NPST
[내가 생각한 것]을 형에게 알리겠다.

11) 인칭 대명사의 경우 굴절을 하기 때문에 주격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격 표지를 취하지는 않으므로 격 표지를 취하지 않은 형태에 포함시켜서 서술하기로 한다.

다. te [mimbe genggiyen gung ni jakade
now 1.SG.ACC clear duke GEN close_to
bi-sire] be sa-fi, (三 6:11b)
be-NPST.PTCP ACC know-ANT.CVB
지금 [내가 명공의 옆에 있는 것]을 알고서,

(4b) 내포문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명사형인 명사화 내포문

가. i julergi amargi de gemu [niyalma akū] be
3.SG.NOM front behind DAT all person there_is_not ACC
sa-fi, (金 2:9b)
know-ANT.CVB
그가 앞뒤에 모두 사람이 없음을 알고서

나. [kungming ni akū] be sa-fi, (三 12:47a)
kungming GEN there_is_not ACC know-ANT.CVB
[공명이 없는 것]을 알고서

다. duka de [hūwaitara morin be tarhūn turga] be
door DAT tie-NPST.PTCP horse ACC fat thin ACC
tuwa-ra, (老 42:5)
observe-NPST.PTCP
문에 [매어놓은 말이 살지고 마른 것]을 살핀다.

예문에서 (4a가)부터 (4a다)까지는 내포문의 서술어가 ra형나 ha형인 경우이다. (4a가)의 cooha isinjiha와 (4a나)의 mini gūniha, (4a다)의 mimbe genggiyen gung ni jakade bisire는 모두 대격 표지 be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4a가)는 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cooha가 내포문의 주어이고, (4a나)는 1인칭 단수 속격 mini가 내포문의 주어이다. (4a다)는 1인칭 단수 대격인 mimbe가 내포문의 주어 역할을 한다. (4b가)부터 (4b다)까지는 내포문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명사형인 경우인데, 이 예문들에서도 내포문은 모두 목적어 자리에서 나타난다. (4b가)에서는 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niyalma가 내포문의 주어이고, (4b나)에서는

kungming에 속격 표지가 연결된 속격형이 내포문의 주어이다. (4b다)에서는 hūwaitara morin에 대격 표지가 연결된 대격형이 내포문의 주어이다.

위의 예에서 내포문이 목적어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시했지만 주어 위치나 여격 표지가 이끄는 부사절의 위치에서도 대격 주어가 나타난다. 우선 내포문이 주어 위치인 경우의 대격 주어를 살펴본다.

(5) 주어 위치의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šulhe ilha-i dolo [dosina-me bai-re
pear flower-GEN inside go_in_to-SIM.CVB seek-NPST.PTCP
be akū] o-mbi, (金 82:6b)
ACC there_is_not become-NPST
배꽃의 안에 [들어가서 찾는 것이 없음]이 된다.

나. [ere dain cooha be bi buye-me
this war soldier ACC 1.SG.NOM desire-SIM.CVB
sebjele-me ji-he-ngge] waka, (老 2:19)
rejoice-SIM.CVB come-PST.PTCP-NMLZ be_not
[이 군병은 내가 원하여 즐겨서 온 것]이 아니다.

위의 두 예문은 모두 내포문이 주어인 경우이다. (가)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나타나는 대격 주어이고, (나)는 서술어가 명사인 경우에 나타나는 대격 주어이다. (나)의 경우는 '~이 ~이 아니다'라는 구성이어서 이중 주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만주어에서 이러한 구성은 inu (맞다), waka (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즉, '[주어 + 서술어] inu, waka' 구성으로 보아 내포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de는 여격을 표시하는 격 표지이기도 하지만 ra나 ha로 끝나는 내포문과 결합하여 '~할 때, ~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ra형의 내포문과 결합하면, '~할 때'의 의미가 되고, ha형의 내포문과 결합하면 '~면'의 의미가 된다. 이 중 대격 주어는 ha형의 내포문이 de와 결합하여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 나타난다.

(6) 여격 표지가 이끄는 부사절의 위치의 대격 주어

가. sunja jui, sargan, aja, [mimbe
five child wife mother 1.SG.ACC
buce-he] de tese banji-mbi, (老 19:30)
die-PST.PTCP DAT that.PL live-NPST
다섯 자식과 아내,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산다.

나. bi [tere be ji-he] de yan liyang,
1.SG.NOM that ACC come-PST.PTCP DAT yan liyang,
wen ceo i karu be su-me
wen ceo GEN revenge ACC remove-SIM.CVB
wa-ki se-mbi=kai. (三 6:80a)
kill-OPT say-NPST=EMP
내가 [그가 오]면 안량, 문추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이고자 한다.

3.2.1.3. 관형화 내포문의 대격 주어

관형화 내포문은 동사 어간이 -ra나 -ha와 결합한 분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이나 형용사나 명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 등이 내포문 명사나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를 수식하는 내포문을 말한다.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를 수식하는 경우 후치사 앞에는 분사형만 올 수 있으므로 관형화 내포문 역시 분사형의 용례만 발견된다. 관형화 내포문 역시 주어는 격 표지와 결합하지 않거나 속격 표지 i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격 표지 be와 결합하기도 한다.

(7a) 내포문 주어가 주격형인 관형화 내포문

가. [bi fonji-re] jakade, siyoo ioi
1.SG.NOM ask-NPST.PTCP because_of siyoo ioi
mini baru gala lasihi-mbi, (金 25:15a)
1.SG.GEN toward hand shake-NPST
[내가 묻]자 소옥(小玉)이 나에게 손을 흔든다.

나. [bi buce-he] manggi, uthai baha-fi
1.SG.NOM die-PST.PTCP after just get-ANT.CVB
sa-mbi. (金 62:22a)
know-NPST
[내가 죽은] 후에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7b) 내포문 주어가 속격형인 관형화 내포문

가. [mini ji-dere] onggolo meni
1.SG.GEN come-NPST.PTCP before 1.PL.GEN(EXCL)
nikan sinde uka-me gene-hebi seme
Chinese 2.SG.DAT flee-SIM.CVB go-PST COMP
hendu-hebi, (老 74:1)
speak-PST
[내가 오기] 전에 우리의 한인이 너에게 도망하러 갔다고 말했다.

나. [mini buce-he] amala si urunakū emu
1.SG.GEN die-PST.PTCP after 2.SG.NOM surely one
udu sefu soli-fi, (金 62:19b)
some teacher invite-ANT.CVB
[내가 죽은] 후에 너는 반드시 몇 명의 스승을 초대해서,

(7c) 내포문 주어가 대격형인 관형화 내포문

가. [tere be buce-re] jakade, daha-me
that ACC die-NPST.PTCP because_of follow-SIM.CVB
buce-mbi seme gisure-he ilan niyalma
die-NPST COMP speak-PST.PTCP three person
golo-fi hendu-me, (老 3:19)
be_startled-ANT.CVB speak-SIM.CVB
[그가 죽]자 따라서 죽겠다고 말했던 세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나. looye gisun [mimbe ma teo de isina-ha]
old_man word 1.SG.ACC ma teo DAT reach-PST.PTCP
manggi, hūda aca-bu-me gisure-me (金 51:19a)
after price meet-CAUS-SIM.CVB speak-SIM.CVB
노인의 말이 [내가 마두(馬頭)에 도달한] 후에 값을 맞추게 하며 말하고,

위의 예문에서 (7a가)와 (7a나)의 1인칭 단수 주격 bi가 내포문의 주어이고, (7b가)와 (7b나)는 1인칭 단수 속격 mini가 내포문의 주어이다. (7c가)는 3인칭 단수 tere에 대격 표지가 결합한 형태가 내포문의 주어이며, (7c나)는 1인칭 단수 대격 mimbe가 내포문의 주어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만주어에서 관형화 내포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주로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잘 일어난다. 몇몇 용례를 제외하면 관형화 내포문의 대격 주어는 보통 후치사와 결합한 경우에 나타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manggi이다. 그 외에도 jakade, turgunde, sidende, amala 등의 후치사와의 결합한 관형화 내포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발견된다. 각각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manggi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suwe [mafuta be isina-ha] manggi,
2.PL.NOM mafuta ACC reach-PST.PTCP after
... jeng giyang de acanju, (老 167:18)
... jeng giyang DAT come_to_meet.IMP
너희는 [Mafuta가 도착한] 후, ... 진강(鎭江)에 합류하러 오라.

나. [mimbe buce-he] manggi, mergen deo
1.SG.ACC die-PST.PTCP after wise younger_brother
si jing jeo i weile be ali-ci
1.SG.NOM jing jeo GEN matter ACC recieve-COND.CVB
o-mbi. (三 8:114a)
become-NPST
[내가 죽은] 후에 현명한 동생, 네가 형주의 일을 받으면 된다.

다. sun siowei o, [si men king be boo-de ji-he]
sun siowei o si men king ACC house-DAT come-PST.PTCP
manggi, ... beye de weile isibu-rahū seme, (金 26:32b)
after ... body DAT sin cause-APPR COMP
손설아(孫雪娥)가 [서문경(西門慶)이 집에 온] 후 ... 몸에 죄가 미칠까 염려된다고,

(9) jakade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가. [mimbe ji-dere] jakade yaya ci neneme
1.SG.ACC come-NPST.PTCP because_of any ABL in_advance
daha-fi, (老 114:4)
surrender-ANT.CVB
[내가 오]자 누구보다 먼저 항복하고

나. [suwembe ... uthai tuci-fi ji-dere]
2.PL.ACC ... just come_out-ANT.CVB come-NPST.PTCP
jakade, han be aide usha-ha seme
because_of han ACC where be_annoyed-PST.PTCP COMP
fonjinji-ha seme hendu-he manggi, (老 95:19)
come_to_ask_PST.PTCP COMP speak-PST.PTCP after
[너희가 ... 곧 나와서 오]자 Han은 어디에 분노했는가 하여 물으러 왔다고 말하자,

(10) turgunde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ningguci eniye [simbe oron ji-derakū] turgunde,
sixth mother 2.SG.ACC at_all come-NPST.PTCP.NEG because
sini yali be je-ki seme seye-mbihe. (金 37:22b)
2.SG.GEN flesh ACC eat-OPT COMP find_vexing-PST
여섯 째 부인이 [당신이 전혀 오지 않]는 이유로 당신의 살점을 먹겠다고 벼르고 있다.

(11) sidende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 [cooha be isinji-re] sidende, han, si uli efu
... soldier ACC reach-NPST.PTCP between han si uli efu
i gūsa be nikan i ing ni dergi de
GEN banner ACC Chinese GEN camp GEN east DAT
ili-bu-fi, (老 122:36)
stand-CASU-ANT.CVB
... [병사가 도착한] 사이에 Han이 Si Uli Efu의 기(旗)를 명나라의 영의 동쪽에 세워서

(12) amala와 결합한 내포문의 대격 주어
[temujin be ini ba-de amasi
temujin ACC 3.SG.GEN region-DAT backward
bedere-he] amala, yungji, aisin han de
return-PST.PTCP after yungji aisin han DAT
hendu-me, (老 15:27-28)
speak-SIM.CVB
Temujin이 자신의 땅에 되돌아 간 후에, 영제가 금나라 황제에게 말하기를

후치사를 수식하지 않는 관형화 내포문의 용례는 형용사가 내포문의 술어이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용례는 1개가 발견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 후치사를 수식하지 않는 내포문의 대격 주어
[beye-be sain akdun] niyalma be geren
body-ACC good strong person ACC many
tuci-bu-fi, (老 22:38)
come_out-CAUS-ANT.CVB
[몸이 좋고 튼튼한] 사람을 많이 내서,

3.2.2. 접속문에서의 대격 주어 현상

만주어의 접속문 구성은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선행문의 동사 어간에 부동사 어미 -me가 쓰인 것 중 동시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를 대등 접속문으로 보고, 부동사 어미 -fi, -ci 등이 쓰인 것을 종속 접속문으로 본다.

(14) 만주어의 접속문 구성

가. jugūn de buksi-ha cooha šurde-me
road DAT ambush-PST.PTCP soldier encircle-SIM.CVB
ka-ha, (三 1:96b)
surround-PST.PTCP
길에 매복한 병사가 에워싸며 포위했다.

나. ing el emu tampin i nure wenje-fi gaji-ha. (金 2:6a)
ing el one pot GEN liquor heat-ANT.CVB bring-PST.PTCP
영아(迎兒)가 한 병의 술을 데워서 가지고 왔다.

다. [bi gene-ci], we simbe tuwaša-mbi. (金 75:48a)
1.SG.NOM go-COND.CVB who 2.SG.ACC take_care_of-NPST
[내가 가면] 누가 너를 돌보는가.

라. [simbe emu akdun gisun be gisure-rakū-ci,]
2.SG.ACC one trust word ACC speak-NPST.PTCP.NEG-COND.CVB
mini juwe juse akda-rakū gele-mbi
1.SG.GEN two child.PL believe-NPST.PTCP.NEG fear-NPST
kai (老 12:34-35)
EMP
[네가 한 마디 보증하는 말을 말하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은 믿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다.

마. suwe tenteke [ehe niyalma be duka
2.PL.NOM like_that bad person ACC door
dosi-ci] sa-rkū-ci, (老 26:21)
enter-COND.CVB know-NPST.PTCP.NEG-COND.CVB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문으로 들어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위의 예문에서 (가)의 šurdeme kaha가 에워싸며 포위하는 동시적인 행위를 보여준다면, (나)의 nure wenjefi gajiha는 술을 데운 후에 가지고 오는 순차적인 행위를 보인다. 만주어 접속문 중 -me와 -fi가 쓰인 접속문 구성에서는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종속접속문 중 조건 부동사 어미 -ci가 쓰이는 조건 관계의 종속접속문에서 하위문의 주어가 대격형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에서 (다)를 보면 1인칭 단수 주격형인 bi가 하위문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라)와 (마)를 보면 2인칭 단수 대격형인 simbe와 ehe niyalma be가 각각 하위문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복합문의 내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원인

4.1. 인용문의 환경에 따른 대격 주어 현상의 실현 양상

본 연구는 3장을 통하여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인용문뿐만 아니라 모든 복합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상위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위문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번 장에서는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만주어의 대격 주어 현상이 모든 복합문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용문은 가장 대표적인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나는 구문 유형이다. 따라서 만주어 인용문의 대격 주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낸다면 인용문 이외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원인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어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滿文老檔』에서 나타난 '인용문 주어-(다른 요소)-피인용문 주어-피인용문 술어-seme-인용문 술어(말하다, 생각하다, 듣다 류)'의 구조를 보이는 용례들을 찾아서 정리하여 보았다.『滿文老檔』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른 문헌들은 한어 자료를 만주어로 번역한 문헌임에 비하여 『滿文老檔』은 만주어가 1차 자료인 문헌이어서 다른 언어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용례는 314개가 발견되었다.

[표 2] 만주어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의 출현 양상

피인용문 주어의 격 표지	인용문 주어 노출 여부	주어 일치 여부	gūni-	hendu-	ala-	donji-	gisure-
be	노출	일치					
		불일치	9	8	4	3	
		불일치 (타논항 개재)					
	비노출	일치	1	1			
		불일치	18	21	7	12	5
		불일치 (타논항 개재)					
∅	노출	일치					
		불일치	1	1	2		
		불일치 (타논항 개재)		1	7	1	1
	비노출	일치	19	22	4		16
		불일치	9	45	64	29	3
		불일치 (타논항 개재)					
계			57	99	88	45	25

표를 보면, 우선 피인용문 주어의 격 표지가 be인 경우 2개의 예를 제외한 모든 용례에서 인용문 주어의 노출과 관계없이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인용문 주어와 피인용문 주어의 관계

가. ememu niyalma, [han be amba weile be
some person han ACC big matter ACC
yabu-re niyalma waka, muse be holto-fi
do-NPST.PTCP person be_not 1.PL ACC deceive-ANT.CVB
geli amasi gene-mbi] seme hendu-mbi, (老 123:35)
again backward go-NPST COMP speak-NPST
혹자는 [Han이 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속여서 또 뒤로 간다]고 말한다.

나. fusihūn gurun [tere be enteheme doro]
low country that ACC eternally morality
seme gūni-ha bihe, (老 143:35)
COMP think-PST
폐국(弊國)은 [그것이 영원히 도리]라고 생각했었다.

다. [simbe kemuni dain] seme gūni-mbi, (老 45:20)
2.SG.ACC still enemy COMP think-NPST
[네가 오히려 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 [mimbe dulba i bi] seme gūni-rahū, (老 59:45)
1.SG.ACC foolish GEN there_is COMP think-APPR
[내가 넋 놓고 있다]고 생각할까 염려된다.

위의 예문에서 (가)와 (나)는 인용문의 주어가 노출된 경우이고, (다)와 (라)는 인용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피인용문의 주어가 대격형인데 인용문의 주어와 일치하는 용례는 2개가 나타난다. 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대격 주어

가. [abkai fejergi niyalma [[mimbe fe ehe be
heaven under person 1.SG.ACC old bad ACC
gūni-rakū, uji-re de amuran]
think-NPST.PTCP.NEG raise-NPST.PTCP DAT be_fond_of
seme gūni-kini] seme] (老 106:20-21)
COMP think-OPT COMP
천하의 사람들이 [[내가 예전의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보살피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나. [[han be boo-de bedere-ki] seme hendu-he]
han ACC house-DAT return-OPT COMP speak-PST.PTCP
manggi, tereci boo-de bedere-he, (老 97:11)
after after_that house-DAT return-PST.PTCP
[[Han이 집에 돌아가자]라고 말한] 후에 그러고 나서 (모두가) 집에 돌아왔다.

(가)를 보면, 이 문장은 이중 인용이고, mimbe는 인용문의 주어이기도 하지만, 피인용문의 주어이기도 하다. 결국 인용문의 주어가 abkai fejergi niyalma이므로 피인용문의 주어는 1인칭 단수 대격인 mimbe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인용문 내부의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가 같지만 대격 주어가 나타난다. (나)를 보면, han은 인용문과 피인용문에서 모두 주어이지만, 그 인용문은 관형화 내포문이 되어서 부사절을 형성하는 후치사인 manggi를 수식하고 있다. 즉, 인용문의 상위문인 부사절의 영향으로 han이 대격 표지 be를 취하게 된다. 이로써 예외로 보이는 2개의 용례가 예외가 아닌 것이 밝혀졌다. 결국 만주어 인용문에서 대격 주어가 나타나는 환경은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다.

다시 표를 보면, 상위문의 주어가 노출되어 있지 않고, 피인용문의 주어가 격 표지가 없이 나타나는 것은 인용문과 피인용문의 주어의 일치 여부와 상관이 없다. 즉, 대격 주어 현상은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인용문 주어가 노출된 경우에 다른 요소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피인용문 주어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예가 4개가 나타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7) 인용문 주어와 피인용문 주어가 모두 격 표지가 없는 경우

가. bi [juwe gurun emu gurun, juwe boo emu
1.SG.NOM two country one country two house one
boo] seme gūni-me banji-mbi=kai, (老 74:5)
house COMP think-SIM.CVB live-NPST=EMP
나는 [두 나라가 한 나라, 두 집이 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나. yaya niyalma, [ere gisun jaci abka be
any person this word very heaven ACC
gidaša-ha] seme hendu-ci, (老 135:17)
take_unfair_advantage_of-PST.PTCP COMP speak-COND.CVB
누군가가 [이 말이 심하게 하늘을 모욕했다]고 말해도

다. geren hafasa [erei boo bayan] seme
many officer.PL this-GEN house rich COMP
ala-ci, (老 165:2)
report-COND,CVB
여러 관원들이 [이 사람의 집이 부자]라고 알리면

라. karun tuwaha niyalma, [sunja niyalma
outpost look-PST.PTCP person five person
sa-bu-mbi] seme alanji-ha manggi, (老 35:20)
see-PASS-NPST COMP come_to_report-PST.PTCP after
초소를 보던 병사가 [사람 다섯 명이 보인다]고 알려오니,

예문에서 먼저 (가), (나), (다)를 보면 이 예문들은 피인용문의 주어가 무정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의미상으로 각 피인용문의 주어는 피인용문의 주어일 수는 있어도, 인용문의 주어일 수는 없다. (라)는 인용문의 주어가 karun tuwaha niyalma로 나타나 있는데도 피인용문에서 피동 동사 sabu-(보이다)의 주어인 sunja niyalma에 대격 표지가 연결되지 않은 예문이다. 이 경우에도 sabu-가 피동이기 때문에 sunja niyalma가 인용문의 주어일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예문들을 통하여 만주어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은 의미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2. be의 특성과 대격 주어 현상의 원인

현재까지 만주어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8) 만주어 복합문의 대격 주어 현상의 특징
가.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나타나며, 상위문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모두 노출된 경우에 의미상 혼동을 줄 수 있을 경우 하위문에서 대격 주어를 취한다.
나. 상위문의 주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가)와 (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은 만주어 표지 be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밝혀낼 수 있다. be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be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특성으로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한정되거나 문장에서 유표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12] 전자의 특성은 (가)

12) 도정업(2017), 「만주어 격 표지 be의 분포와 기능」, 『언어학』 77, 한국언어학회, p. 189.

의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근거가 되고, 후자의 특성은 (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우선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be가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be의 궁극적인 역할이 목적어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주어가 아닌 논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면 문장에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 be가 목적어가 아닌 요소에도 연결될 수 있다.

(19) 논항을 받지 않는 요소와 be의 결합

가. [šanaha i tulergi gašan pu be,] hiong ciyan,
šanaha GEN outside village fort ACC hiong ciyan
wang du tang juse hehesi be, gemu šanaha de
wang du tang child.PL female.PL ACC all šanaha DAT
dosi-mbu-me gama-ha, boo be gemu tuwa
enter-CAUS-SIM.CVB take-PST.PTCP house ACC all fire
sinda-habi seme alanji-ha manggi, (老 34:32-33)
put-PST COMP report-PST.PTCP after
[산해관 바깥의 촌락과 보를] 웅건, Wang 도당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모두 산해관으로 들어가게 이끌어갔고, 집을 모두 불 태웠다며 알려 왔으므로,

나. [erei amala ilan ukanju gene-he be,] juwe
this-GEN after three fugitive go-PST.PTCP ACC two
niyalma be sa-me gai-habi, emu niyalma
person ACC know-SIM.CVB take-PST one person
be jušen seme amasi unggi-me, bele
ACC jušen COMP backward send-SIM.CVB hulled_rice
dabsun bu-fi, (老 16:2)
salt give-ANT.CVB
[그 뒤에 세 도망자가 간 것을,] 두 사람을 알아차려 잡았고, 한 사람을 여진인이라 하여 되돌려 보내면서 쌀과 소금을 주고서,

(가)에서는 산해관 바깥의 촌락과 보라는 타동사에 대한 피행위주가 존재하는 지역을 문두에서 씀으로써 어떤 대상에 대한 서술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에서 ilan ukanju genehe는 술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쓰인 be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뒤의 서술되는 내용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be는 격 표지라기보다 문장에서 부가적인 요소임을 표시해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와 연결시켜 보면 하위문의 주어에 쓰인 be는 하위문의 주어를 상위문의 주어와 구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예문 (16)과 같이 의미상으로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하위문 주어와 be의 결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예와 같이 행위주가 될 수 있는 하위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에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 하위문 주어와 be의 결합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20)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
geren hafasa [*si/simbe sain] seme
many officer.PL *2.SG.NOM/2.SG.ACC good COMP
ala-ha bihe, (老 107:24)
report-PST
여러 관원들이 [네가 좋다]고 알려 왔다.

위의 예문에서 하위문의 주어에 2인칭 단수 주격형인 si가 쓰였다면 이 문장은 '여러 관원들과 네가 좋다고 알려 왔다'로 해석이 된다. si가 상위문의 주어로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예외 없이 대격 주어 형태가 쓰인다. be의 구분자로서의 역할로 인해서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이어서 출현해도 의미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be가 목적어가 한정되거나 문장에서 유표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be는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본다.

(21) 타동문에서 대격 표지 be의 수의적 출현

šanggiyan morin-∅ wa-fi, senggi be emu moro, yali
white horse kill-ANT.CVB blood ACC one bowl meat
be emu moro, boihon-∅ emu moro, arki-∅ emu
ACC one bowl soil one bowl liquor one
moro, giranggi-∅ šo-fi sinda-fi, (老 1:21-22)
bowl bone scrape_off-ANT.CVB put-ANT.CVB
백마를 죽이고, 피를 한 사발, 고기를 한 사발, 흙을 한 사발, 술을 한 사발, 뼈를 깎아서 놓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어 타동문에서 be가 부재한다고 해서 비문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최성호(2009)에서 한국어의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구에 격조사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3)]

(22) 타동문에서 대격 표지 be의 부재

가. sure kundulen han, hūrhan hiya de [etu-re
sure kundulen han hūrhan hiya DAT wear-NPST.PTCP
uksin, yalu-re morin]-∅ bu-me, (老 1:33)
armor ride-NPST.PTCP horse give-SIM.CVB
Sure Kundulen Han이 Hūrhan Hiya에게 [입을 갑옷, 탈 말을] 주고,

나. amba beile, menggun ku i da de
amba_beile silver warehouse GEN leader DAT
gene-fi, [ninggun tumen ninggun minggan
go-ANT.CVB six ten_thousand six thousand
yan menggun]-∅ gaji-fi, (老 28:23-24)
ounce silver bring-ANT.CVB
Amba Beile가 은 창고의 수장에게 가서, [6만 6000냥 은을] 가져와서,

13) 최성호(2009), 「한국어 "교착" 현상에 대한 연구 – 러시아어 굴절과 비교하여」, 『언어학』 55, 한국언어학회, p. 180.

위의 문장을 보면 주어와 목적어에 어떠한 격 표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최성호(2013)에서는 문장의 어떤 성분이 출현했다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과 관련된 정보인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장에 출현한 성분이라고 하였다.[14] 만주어의 be의 출현과 부재에 있어서 최성호(2013)의 주장은 타당하다. 만주어에서 be가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경우는 문장에서 의미의 차이를 유발하거나(목적어를 한정하는 경우), 문장 내에서 논항의 구분이 필요할 때(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다른 논항이 개재된 경우)이다. 그 외에 be가 문장에서 쓰였다면 그것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 부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be는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가되는 요소이다. 이것을 (나)와 연결하여 보면, 하위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 다르면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주어에 대한 be의 결합은 선택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합하여 보면,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복합문의 하위문에서 대격 주어 현상이 나타나며, be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하위문의 대격 주어 현상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14) 최성호(2013), 「교착 통사론: 생략과 부가」, 『언어학』 65, 한국언어학회, p. 16.

5. 맺음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만주어의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주어 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밝혀 보았다. 대격 주어 현상은 만주어에서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만주어 복합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특히 인용문에서는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대격 주어는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의미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위문의 주어에서 나타나며, 상위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be가 문장 내에서 주어와 다른 요소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특성과 만주어의 타동문에서 목적어가 한정되거나 문장에서 유표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재일(1985),『국어의 복합문 구성연구』, 파주: 집문당.
도정업(2017),「만주어 격 표지 be의 분포와 기능」,『언어학』77, 한국언어학회.
박철우(2003),『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이정민(1992)「(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국어학』22, 국어학회.
최동권(2006),「국어・몽골어・만주어 인용문 비교연구」,『알타이학보』16, 한국알타이학회.
_____(2002),「만주어 내포문 주어의 표현 양상」,『동양학』3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최성호(2013),「교착 통사론: 생략과 부가」,『언어학』65, 한국언어학회.
_____(2009),「한국어 "교착" 현상에 대한 연구 － 러시아어 굴절과 비교하여」,『언어학』55, 한국언어학회.

今西春秋(1938),『滿和對譯滿洲實録』, 日滿文化協會.
上原 久(1960),『滿文 滿洲實錄の研究』, 東京: 不昧堂.
岸田文隆(1990),「三譯總解 底本考」,『알타이학보』2, 한국알타이학회.
早田輝洋(2011),「満洲語における対格主語」,『九州大学言語学論集』32.
津曲敏郎(2002),『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Gorelova, Liliya M. (2002), *Manchu Grammar*, Leiden: Brill.

원고 접수일: 2017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약어 목록

1 first person	INCL inclusive
2 second person	IND indicative
3 third person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ABL ablative	NEG negation, negative
ACC accusative	NOM nominative
ANT anterior	NMLZ nominalizer
APPR apprehensive	OPT optative
CAUS causative	PTL particle
COMP complementizer	PASS passive
COND conditional	PL plural
CVB converb	PST past
DAT dative	PTCP participle
EMP emphasis	PTL particle
EXCL exclusive	Q question particle/marker
GEN genitive	SG singular
IMP imperative	SIM simultaneous

Abstract

A Study on the Accusative Subject of Complex Sentence in Manchu

Do, Jeong Up*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environment of the accusative subject phenomenon by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this phenomenon in complex sentences in Manchu. The accusative subject phenomenon is not essential in Manchu, but it is widely used in complex sentences, especially in quotations.

The accusative subject appears in the subject of the lower sentence to avoid semantic confusion when the subject of the higher sentence differs from the subject of the lower sentence. If the subject of the higher sentence doesn't appear, the accusative subject of the lower sentence appears optionally. This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be* plays a role in distinguishing subjects from other elements in sentences and the fact that *be* appears optionally unless the object is defined or is in a marked position in the sentence in transitive sentence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